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9월 2일(수) 제2차 지부총파업 결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8월 10일(월) 제11차 지부 비상투쟁본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대전충북지역 금속노조사업장 사용자가 2020년 중앙지부지회의 요구(안)에 대해 8월 21일(금)까지 조합원이 만족하는 의견접근(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9월 2일(수) 2차 지부총파업을 진행한다"

1. 제2차 지부총파업 일자 및 장소

- 2020년 9월 2일(수), 시간 및 장소는 추후공지

2. 제2차 지부총파업 세부 의결사항

- 1)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회의 전 조합원은 9월 2일(수) 4시간이상 전면파업을 한다.
- 2) 각 지회는 사업장에서 약식결의대회 후 지부투쟁본부 결정에 의거하여 지부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 3) 지부 총파업 결의대회 시간 및 장소, 규모, 참여단위 등의 최종결정은 8월 24일(월) 제12차 지부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한다.
- 4) 8월 31일(월) 11시경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2차 지부총파업의 당위성 및 코로나19 경제위기 책임전가의 부당성, 전면해고 금지의 당위성을 지역에 사회화쟁점화 한다.
- 5) 8월 21일(금)까지 각 지회는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2차 지부총파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지부는 사업장 조직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2차 총파업조직화를 위한 조합원 설명회 및 현장순회 등을 한다.
- 6) 교섭권이 없는 복수노조사업장과 2020년 쟁의권이 없는 지회는 지부 결의대회에 확대간부동지들을 참여시키며 조합원 총회 및 교육시간 할애 등으로 조합원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한다.

2020년 8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

